국태민안 풍년기원 사직대제(社稷大祭)봉행

△황사손 이원 총재가 초헌례를 올리고 있다.

△좌상 : 어가행렬, 우상 : 세자와 삼정승역, 좌하 : 이태섭위원장의 인사, 우하 : 제례악에 맞춰 일무를 추고있다.

지난 9월15일(일요일) 정오에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단(社稷壇)에서 문화재청 주최 사직대제보존회 주관 하에 2013년 시직대제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종묘제례악보존회 후원으로 전국 유림단체 및 전국 성씨(姓氏) 문중단체 등 국내. 외 관람객 포함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례가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에 앞서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1부 어가행렬(御駕行列)11시부터 덕수궁을 출발 세종로 경복궁 앞을 거쳐 사직단에 이르기까지 국왕이 친히 행하는 거가(車駕)의 출궁(出宮), 이때는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은 궁궐(宮闕) 밖의 어연(御輦:임금이 타는 가마)을 향하면 일산(日傘: 햇볕을 가리는 양산)과 부채를 든 시위가 따르고 그 뒤 호위부대인 현무대(玄武隊)가 행렬하는 등 국왕의 위엄을 보여준 의식절차가 있었다.

이어 식전행사로 이건웅(사직대제 예능보유자)집례에 의하여 초헌관(황사손皇嗣孫 이원李源총재)의 영신례(迎神禮)로 부터 전폐례(奠幣禮), 천조례(薦俎禮)이어 초헌례에 이복용 대축관은 축문을 고(告)하였다. 이때 헌관, 제집사 포함 참반원 모두 부복하여 예(禮)를 갖추고 제례악도 그치고 일무(佾舞)는 문무(文舞)가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오는 춤이 진행되었다.

이어 아헌, 종헌례 순으로 헌작을 행하고 끝으로 음복례(飮福禮)와 망료례(望僚禮)로 예필(禮畢)을 마쳤다.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는 사직은 원래 "토지신인 사(社)와 곡물신인 직(稷)에게 제사하는 단(壇)을 사직단(社稷壇)이라고 하는데, 사단은 동쪽, 직단은 서쪽에 설치하였다." 역사적 유래로는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으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로부터 봉행하였으며 봄, 가을 두 번의 대향사(大享祀)와 정월의 기곡제(祈穀祭) 가뭄에 기우제(祈雨祭)등이 봉행되었다." 근간 2000년 10월 사직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매년 양력9월 셋째 일요일에 봉행되고 있다.

이어 기념제행사로 이상훈(李商訓. 봉행위원회)씨 사회로 참석하신 내. 외귀빈 및 전국성씨문중별 대표 및 유림단체 순으로 소개하였다. 이어 이태섭 본회봉행위원장의 인사말로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대제 참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서두인사한 후 "오늘 봉행되는 사직대제는 종묘대제와 더불어 국가적인 제사입니다. 2000년 10월 사직대제가 국가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 명실상부한 전통문화행사로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을 뿐 아니라 2010년에는 사직제례악(社稷祭禮樂)과 일무(佾舞)를 원형대로 복원하였습니다." 라고 인사하였다.

이어 참제한 제헌관이 모두 모여 기념촬영으로 본 대제봉행을 마치고, 이날 권문(權門)에서는 제례헌관으로는 분임되지 않았으며 왕비의 부원군문중으로 권정달 대종원 총재가 사직대제 봉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소개되었다.

〈권범준 홍보부장〉

權得洙 청년의병장 경기일대에서 활약

"나라 없는 백성으로 왜놈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당당한 삶을 누릴 것이다." 젊은 나이에 순국한 청년의병장 권득수(權得洙) 선생이 결전을 앞두고 의병(義兵)들을 격려한 말이다.

입지(立志)의 나이를 겨우 지난 31세에 장렬하게 전사(戰死)한 항일 의병장 권득수 선생은 1877년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서 출생하여 파주시 적성에서 성장(成長)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일으켜 보겠다는 굳은 의지(意志)로 약관의 젊은 나이에 가산을 정리하여 군자금을 마련한 뒤 거사를 위해 양평으로 내려갔다. 이후 선생은 순국할 때까지 양평을 주 근거지로 삼아 경기도 양주와 포천 그리고 강원도 홍천·화천·춘천 일대에서 의병활동(義兵活動)을 전개하였다.

용문산 결전(決戰)에서 장렬하게 전사(戰死)

선생이 거느린 의병(義兵)은 한때 400여명의 이르는 대부대로 성장(成長)하게 되었으며 강원도일대에서 병력(兵力)을 보강(補强)하여 세력이 크게 강화되던 무렵 선생은 민긍호를 비롯한 주변지역 의진과 연합전선구축(聯合戰線構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1907년 8월, 서울에 인접한 양평일대에서 선생이 지휘하는 의병을 비롯하여 의병활동(義兵活動)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일제는 양평의병을 제압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게 되었고, 8월23일부터 4일간의 양평각지에서는 의병과 일본군 사이에 수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선생은 일본군과의 결전에 앞서 400명의 휘하 의병을 용문산에 집결시켜 놓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라며 독려하였다. 선생은 일본과의 수차에 걸쳐 접전을 벌리던 중 1907년 9월 2일 용문산전투에서 31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성균관전의 겸 전례사 權貞澤〉

정조공파(正朝公派) 경로잔치 개최

△9.11 정조공파 경로잔치가 송현동 묵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동권씨정조공파(正朝公派 : 회장.권인탑) 경로잔치가 9월 11일 오전 11시 안동시 송현동 <묵향> 2층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권계동 대종원 상임 부총재, 권주연 부총재, 권경웅 전례위원장, 역대 정조공파 회장, 종원 및 부인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망배, 상읍례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권인탑 회장이 참석한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권인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전제하고 "안동이 예부터 '추로지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선조들의 은덕"이라고 강조하고

"조선 선비의 반이 영남인이고 영남의 반이 안동인이다"고 자랑했다.

그는 "8년 째 종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한 종원의 자녀 중 판사, 변호사, 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는 정조공파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계동 대종원 상임 부총재는 축사에서 "여러분이 대종원을 도와 주어서 무엇보다도 고맙다"고 노고를 치하한 후 "나는 복야공파의 한 사람으로 참석자가 많아서 마치 안방에 온 느낌이 들고 또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어서 무척 부럽다"며 정조공파를 치켜 세웠다.

권 부총재는 대종원에 관한 사항에서 건물 나무 기둥에 붙혀있는 주련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능동(陵洞) 둘레길을 조성해 놓아서 추향제 때 와 보면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려면 빠, 삐, 따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어느 모임에도 빠지지 말고, 삐지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권유했다.

권경웅 전례위원장, 권주연 부총재, 권기창 경도대 교수 등 3명도 축사에서 "경로잔치를 축하한다"며 덕담을 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나자 불고기를 곁들인 점심과 소주, 맥주, 음료수 그리고 떡, 포도 등의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가기 속에서 족의(族誼)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전에도 비가 조금씩 내렸지만 많은 종원들이 행사에 참석하자 주최측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과 우산을 선물로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대전 參議公宗中 譜學講座 開催

참 의 공 종 중 보 학 강 좌

지난 8월 14일 제1회 대전참의공 자손 보학강좌를 실시하였다.

조상의 얼과 업적 학문 등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자손들이라도 알고 지키고 계승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손들 위주로 강좌를 실시하였다.

젊은 자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에 날자를 잡았으나 젊은 자손들은 5명이 참석하고 성인이 35명, 총 40명이 참석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소종중 지파별 참석인원은 유회당공자손 11명 이판공 4명 백저공 4명 사평공 4명 함창공 3명 이참공 2명 대사간 3명 명고공 2명 현감공 송제공 통덕랑 월포공 형감감공 충렬공 각회공 각 1명씩 참여하였다.

강의 내용은 안동권씨의 연원 . 안동권씨의 분파도 . 안동권씨의 자랑. 보학상식 . 예절. 참의공 세사 등이었으며 강사로는 참의공종중 이사장 권호준, 만회공종중 이사장 권석구, 대사헌종중 이사장 권박원이 맡았다.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비단필사 15세기 중반

◙ 최 순 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지난호에 이어〉

그의 아버지 권전은 1411년(세종23)에 죽어 국구國舅의 예로서 '경혜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나,단종과 현덕왕후가 폐위됨에 따라 시호 및 관작이 모두 취소되었다. 그리고 현덕왕후의 어머니이자,권전의부인인 최씨 아지隔只는 물론, 권자신의 사촌 권자검과 권자공의 아내 보음미甫音未와 아들 권저權著,그의 아내 계비季非와 첩 복가이卜加稍,딸순비順非,누이 소사召史도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죽거나 노비가 되었고, 권저의 동생 권책(1444~)은 연기미만年期未滿으로 영해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현덕왕후의 동생인 권자신(1418-1456)도 1455년(세조 1)에 호조참판戶曹參判,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3등에 이르렀으나, 1456년(세조 2)에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고 (그의 아내 어둔於屯과 딸 구덕仇德, 첩녀妾女 미치未致는 노비가 되었다.) 족도에는 권자신의 아들로 '자'만 기재되어 있다가,후대에 권하權瑕가 추록되어 있고 실록에 나오는 구덕과 첩녀 미치는 빠져 있다. 그리고 단종의 이모부 권산해는 단종이 물러나자 벼슬을 그만두었으나, 사육신 사건으로 관직을 삭탈당했다 또한 이모부 조청로와 윤영손도 1456년(세조 2)에 사육신 사건으로 연좌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나중에 추록된 김영명(1398-1463)의 경우 권전의 둘째 사위로 기록되어 있다. 이 족도에서 서체가 다른 점으로 보아, 김영명은 권전의 다른 사위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추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다면, 김영명의 경우 자리를 비워놓고 '여'만 표기하고, 그 아래에 붉은색 계선으로 연결하여 '여'및 '자' 김한철만 기재한 것이다. 나중에 김영명을 추록하면서 그의 아들 김한석과 김한동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명의 첫째 아들 김한계(1414-1461)는 아예 빠져 있다. 김한계는 광주이씨소생이기 때문에 이 족도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안동권씨성화보'에는 승문부지承文副知로 기재되어 있다. 김영명은 부인이 셋인데, 권씨는 그 중 첫째 부인이다. 김한계는 확실히 권씨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김한철, 김한석, 김한동 등은 '안동권씨족도'에 기재되어 있고 '의성김씨세보'에 2자 김한철의 묘소가 외조 권전 묘소 뒤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김한철 이하는 권씨 소생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족도에 추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청로 윤영손의 경우도 원본에는 '여'로만 기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추록한 것이다. 이들이 후대에 단종의 이모부로 기록되기는 하지만 '세조실록'에 조청로의 부인 노비老非,윤영손의 부인 탑이搭伊와 딸 효도孝道는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노비가 된 것으로 나온다. 윤영손의 부인 탑이는 지중추원사 박강의 노비가 되고,윤영손의 부인이자 권전의 딸이 박강의 부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탑이는 권전의 딸로 여겨진다.

■안동권씨 동성혼

이와 함께 안등권씨 내에서도 파를 달리하여 혼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안동권씨는 총 15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가 확인되지 않은 권여온을 기점으로, 크게 권백종權伯宗-권전權專-권자신權自愼과 권백종의 형인 권덕생權德生 권자형權子衡-권해權諧-권가후權可後-권징灌徵 등의 부정공과 가계, 권희봉權希逢-권이權彛-권귀령權龜齡-권겸權謙-권수익權受益 등의 중윤공파 가계, 권시중權時中-권도權度-권權咥-권시權偲-권렬擺扒 등의 부호장공파 가계, 권희정權希正 권초權軺 권관權寬-권산해權山海 등의 좌윤공파 가계 등이 상호 혼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권오영족 두아들 박사학위 취득

△오영족친 칠순잔치에 3대가 함께 기념 촬영 장면(맨 좌측 큰아들 세훈, 맨 우측 막내 세일 박사와 가운데 금메달 2개를 찬 손자 세일씨 아들이 부산시장배 합기도 2체급 석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排芳邑) 세교리(細橋理)에서는 근간 보기 드문 권문의 후예(後裔) 형제 박사 소식이 접해졌다. 형제 박사의 가정은 다름 아닌 권오영(72)五榮. 35世. 추밀공파 화산부원군계, 영주태생으로 선친(先親)은 권이선(彛繕) 자당(慈堂) 이현이(賢伊) 진성이씨 사이의 3남3녀 중 막내로 출생, 오영 족친의 선대조상은 부천시 계양 동양리이며 상대(上代)는 영주 등지에서 낙향 세거(世居)하였다.

오영 족친은 부인 전주최씨 영숙(67)여사와의 슬하 2남을 두었다. 장남(長男. 세훈世勳. 45)씨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동 경영대학원석사과정(97.2월) 졸업 후 가정 형편상 은행, 연구원직으로 주경야학(晝耕夜學)하여 학비를 자립 충당해가며 그후 박사과정을 이수 2004년 10월경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사립명문 듀크대학에서 연수 후 2005년 귀국하여 여의도 자본시장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후, 현(現)상명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남(次男. 세일世逸. 44)씨는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졸업 후, 고려신학대학대학원을 수료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 등 봉사하면서 앞전 부산대지질학과 학사학위 후 재차 동대학원 지질학과정을 이수 후 2002년 8월 가족과 같이 미국유학 미시건주 칼빈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후 인디애나주 콩코디아대학원에서 박사과정(3년)을 수료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위논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귀국 그 이후 2009년 11월부터 부산에서 교회 사역 등을 하면서 봉사하다 형과 교회 신도, 지인들의 도움으로 2012년 9월 재차 출국하여 금년 5월 콩코디아대학원 선교학(宣敎學)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렇듯 두아들의 박사형제가 있기까지는 부친인 오영 족친은 결혼 후 동래구 소재에서 30여년간 불비한 여건 속 변두리 이용소를 직접 전전긍긍 운영하였으며 휴업날에는 폐자재 등 고목을 주어 난로를 피우는 열악한 가운데서도 불우 및 노약자를 무료봉사하는 등 주위로 선행미담이 되어 1997년 KBS 부산방송국 '아침마당' 프르그램에 가족과 함께 선발되어 초청 방영된바 있다.

씨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사회선행귀감이 되고 부인인 최여사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점상 등에서 짝이 맞지 않는 신발 등 옷가지, 지인들의 헌옷을 얻어 입히고 철저한 근검정신을 일깨워 주었으며, 한편 노력 후의 댓가가 온다는 성취감을 일깨워 주기 위해 목표한 일류대학에 입학식 때는 "그땐 비싼 신발을 처음으로 사주었다." 라고 했다.

이렇듯 이들 부부는 자식교육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며, 어린 시절부터 거목(巨木)의 토양역할을 제공해준 것이 맹모삼천(孟母三遷)의 엄격한 훈육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훌륭한 권문의 후예를 길러 영예를 안겨준 이들 부부에게 권문과 함께 칭송을 보낸다.

〈권범준 홍보부장〉

安東權氏 樞密公·忠憲公 歲享祭 案內

京畿道 坡州市 津東面 下浦里山 177壇所에서 2013年 度歲享祭를 奉行하오니 많은 派親 들의 參祭를 바랍니다.

日 時 : 2013년 10월 20일 (셋째 週 日曜日) 10시 30분

交 通 便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지하철 5호선 1,8번 출구 옆) 대기중인 한국관광버스 2대에 탑승(08시 30분 정각출발)

개인참제 : 개인별 참제 파친은 당일 09 : 30분까지 전진교 군 검문소에 도착 출입절차를 필하기 바람(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요망)

연 락 처 : 추밀공파 대종회 사무실(02-737 6423) 사무국장 : 011-9867-3177

2013년 10월 1일

安東權氏 樞密公派 大宗會 會長 權赫昇